

자치구 청소년의회,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 위해 운영방안 개선, 서울시 등 관련주체와 협력 필요

서울시·15개 자치구,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하나로 청소년의회 운영 중

최근 학생 인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전통적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의 주체, 즉 자신과 사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여, 자치, 민주주의, 사회통합 학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자치구라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치교육 참여기제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20년 기준 서울지역에는 총 16개의 청소년의회가 개설되었으며 각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자치구 청소년의회 개설현황(2020년 3월 기준)

구분	역할
광역 (1)	· 서울시
기초 (15)	· 중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용산구, 양천구, 구로구, 동대문구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모의의회 성격의 청소년의회 포함)

청소년의회, 자치구 특성에 따라 참여 학령·선발 방식 등 다양하게 구성

자치구 청소년의회 참여대상 및 선발방식은 자치구에 따라 다양하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금천구 등은 초·중·고생이 모두 포함된 의회를 구성하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아동의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의사일정과 청소년 간 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중·고등학생 중심의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서류·면접방식으로 청소년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타당성을 선거 과정에 반영하려고 해당 지역 청소년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등 다양한 선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참정권, 안전·보건, 지역사회 내 활동 등이 청소년의회의 주요 안건

자치구별 청소년의회 논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자치구 청소년에 한정된 안건부터 보편성을 갖는 청소년 사회 이슈까지 폭넓게 구성되었다.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활동 관련 안건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지만, 자치구 범위를 넘어서는 인권·참정권, 안전·보건, 학교폭력 등의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인권·참정권 주제에서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학생 인권조례, 청소년 노동권 등에 관심이 높았고, 안전·보건 주제에서는 흡연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놀이문화, 청소년 공간 이용 개선, 자원봉사활동 등의 안건들이 많았고,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칙개정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자치구 청소년의회 안건분석 결과

구분	건수	비율	주요 안건
인권·참정권	25	31%	· 청소년 참정권, 장애인식, 다문화가정 인식, 학교 밖 청소년, 학생인권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의회, 청소년 도박, 미혼모 문제 등
안전·보건	22	27%	·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건널목 안전, 금연구역 범위, 전동보드 운행 전용도로, 학교주변 위험장소, 청소년 간접흡연 실태, 미세먼지 대책, 교내 위험시설, 성교육 개선 등
청소년 활동	20	25%	· 청소년 축제문화,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기재단,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공간 이용 개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전시회·플리마켓 등
학교폭력	3	4%	· 다목적 CCTV,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제안 및 보완
학교생활	8	9%	· 학교 교칙, 교직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학교 시설물 개선, 친환경급식 지원, 학교교류 활성화, 학생회 안내서 등
진로	3	4%	·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 등
전체	81	100%	-

청소년의회, 직영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 ...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 보유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자치구 직영체제와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자치구 직영체제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치구청 내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가 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해당 부서 담당자가 의원 모집부터 구성, 활동 내용 등을 직접 담당하다 보니 업무부담이 많아 청소년 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의회 운영방식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관계형성이나 원활한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대체로 운영 담당자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청소년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의회 활동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 차원에서 청소년의회 담당 공무원과 위탁기관 담당자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활한 의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 내 실무 담당자도 자주 변경되어 안정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기 힘든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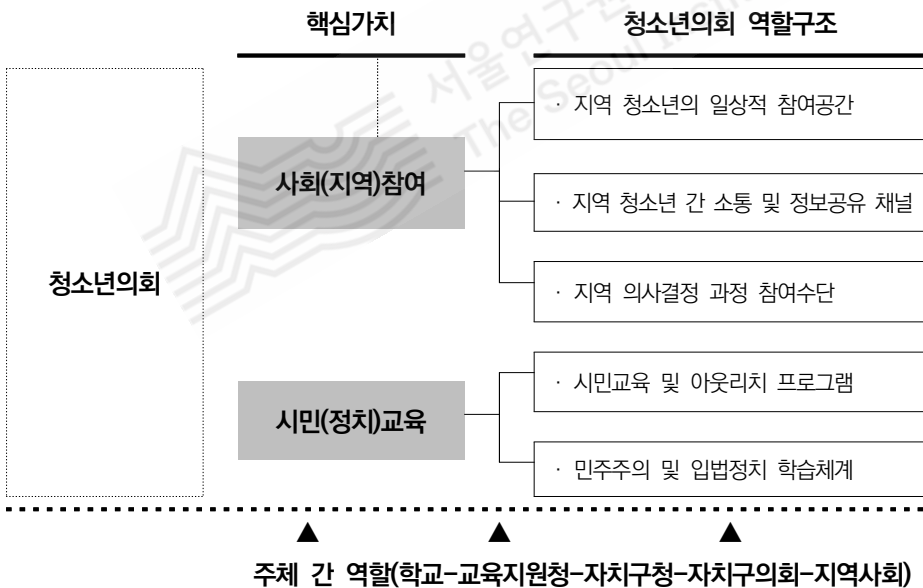
자치구의회·학교·교육지원청 등 관련 이해집단과 연결구조 상대적 미흡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및 역할주체들로 구성된다. 먼저 자치구의 경우 실제 의회를 직영하거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의회와 가장 밀접하고 연결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자치구의회의 경우 청소년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행정 업무단위의 부분적 협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학교 대표를 추천하는 것, 교육청은 학교에 학생추천 협조를 구하고 추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구청에 보내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치구 청소년의회의 경우 교육적 기능 외에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구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는 그러한 역할구조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청소년의회 비롯한 자치구의회·서울시·지역사회 등 관련주체와 협력 중요

자치구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회는 지방의회와 연결해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학습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치구 청소년의회 간 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의회 지원인력 등 실무자급의 교육과 교류, 청소년의회 본연의 철학적 가치와 기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구 청소년의회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하다. 자치구에서 행정·재정의 제약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안건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등과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회의 활동에 지역사회 내 학교와 시민단체, 정당 등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시민단체, 비영리 단체의 협력과 더불어 정당 차원에서 시민 대상의 정치교육의 하나로 청소년의회에 대한 제도적·실질적 지원 마련을 해준다면 지역사회 여론과 청소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핵심가치와 역할구조